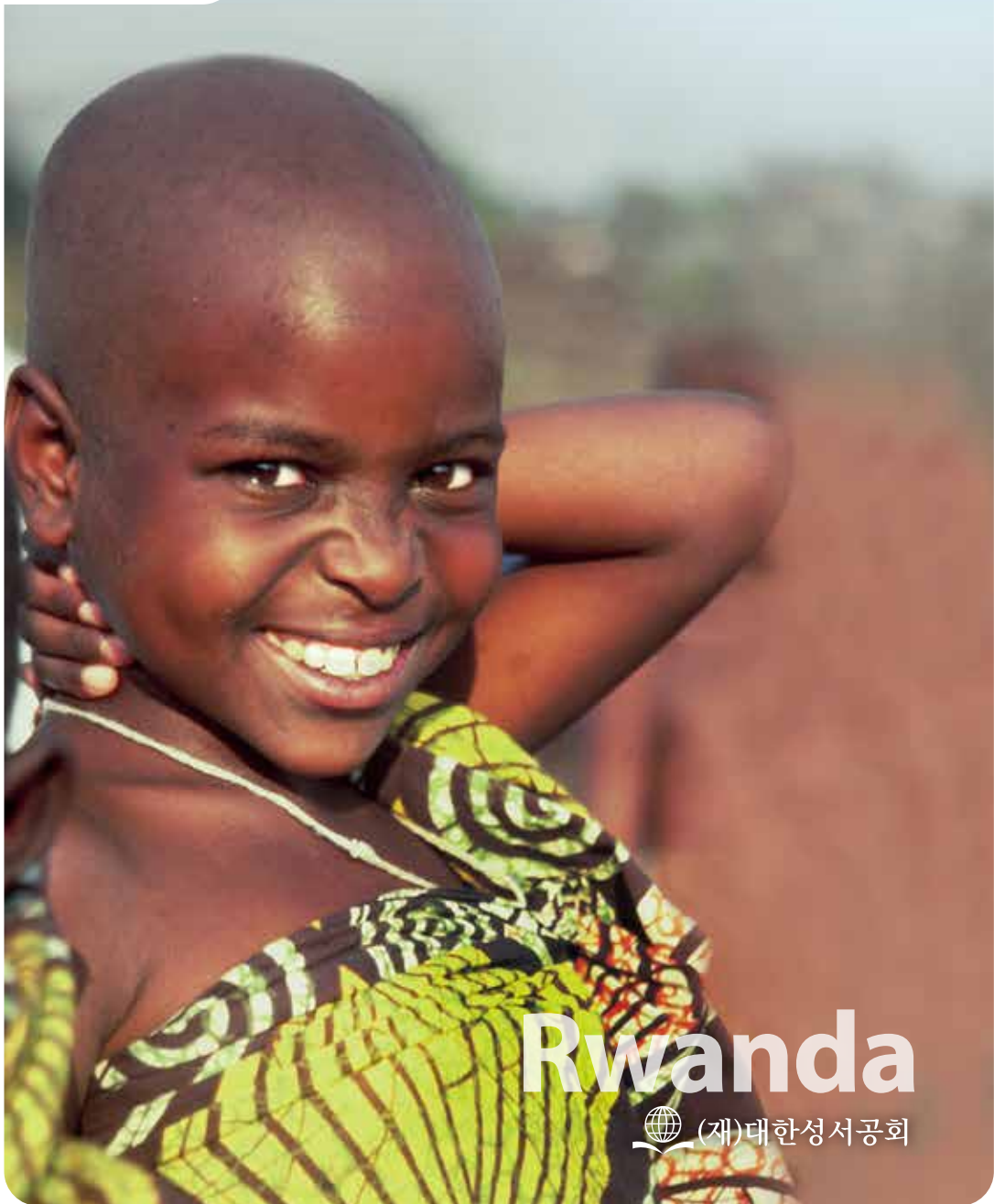


2016

여름 제62권 2호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Rwanda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성경을 보내는 일,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한글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한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150여 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성서공회들을 위하여
성경 제작, 출판,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맹퇴치를 위한 문자교실 프로그램과 에이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www.bskorea.or.kr

Contents



02 성서 사업 보고

04 커버스토리

대학살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르완다에 성경을 보냅니다

08 후원 교회

- 미얀마에 라시더 해설 신약전서를 보냅니다
- 네팔에 성경 10,240부를 보냅니다

12 성경 보내기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60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14 긴급모금

지진으로 무너진 에콰도르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18 말씀을 만나다

가마우지

20 세계성서공회 소식

내전 중에도 성서를 반포하고 있는
시리아성서공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2 KBS단신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대한성서공회를
성서 출판 지원 센터로 공식 인준하다
- 제12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 전 세계 성서가 2,935개 언어로 번역되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58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1~3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6년 6월 30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강수현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법제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
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사장보고



권익현 사장

제9차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총회가 지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총회에 이어서 6년 만에 열린 이번 세계총회에는, 전 세계 150여 개 성서공회에서 4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를 위한 산 소망”이라는 주제로, 인구 이동의 가속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전 세계 종교 분포도의 변화 등 급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 환경에 발맞추어 향후 6년간의 세계 성서사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세계총회 기간 중 열린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이사회에서는,

본 공회를 출판 영역에 있어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UBS 성서 출판 지원 센터”로 공식 인준하였습니다. 1973년 이후 본 공회는 해외 성서 보급 사업에 그 역량을 기울이면서, 다른 나라 성서공회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좋은 품질의 성서를 적기에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원, 제반 시설을 확충해왔습니다. 또 미자립 성서공회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서 기증 사업을 펼쳐왔고, 조판, 표지 디자인 개발 등으로 성서 출판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번 공식 인준으로, 성서 출판 지원을 통해 세계 성서운동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이 본 공회에 주어졌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본 공회는 85개 나라에 124개 언어로 총 2,823,178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재정적 인적 지원과는 별도로,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성서공회들에게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20개 나라에 178,845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가나 가봉 모리셔스 에티오피아 카메룬 콩고공화국 등 6개, 중남미의 니카라과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8개, 유럽 중동 지역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란 포르투갈 등 4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얀마 파키스탄 등 2개국으로 성서가 지원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찬성회원들께서 해외 성경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난해보다 약 3억 3백여만 원(25%)이 증가한 15억 2백여만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전 세계로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시는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태평양과 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들과 이재민이 발생한 에콰도르성서공회에서도 성경 기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성서공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 공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협력하여 계속해서 미자립 성서공회 성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주시는 후원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25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대학살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르완다에 성경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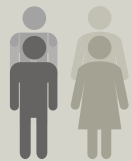
위치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사이



인구

1,266만여 명
(후투족 84%, 투치족 15%, 트와족 1%)



언어

키냐르완다어, 불어,
영어, 스와힐리어 등



종교

기독교 93.4%
무교 3.6%
이슬람교 1.8%
기타 1.2%



1994년 비극의 역사, 대학살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대학살은 르완다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투치족과 후투족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발생한 대학살로 인해 약 100일 동안 백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르완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였고, 대학살로 인해 수천 명의 고아와 난민이 생겼다. 또한 교직원을 비롯한 대다수 사회 기관 종사자들이 희생되면서 대학살 이후 세대가 안정적인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르완다는 과거를 교훈 삼아 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이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르완다 전체 인구의 약 29.5%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져 수많은 청소년들은 가정 폭력을 겪고 있고, 집을 떠나 거리에서 배회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르완다 키갈리 기념관에 걸려있는 대학살 희생자 사진



성경을 읽고 있는 르완다 여성

다음 세대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르완다성서공회

르완다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르완다 사회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살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르완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혹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 이에 르완다성서공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르완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다. 현재 르완다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자교실과 사설 문자교실이 있지만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르완다성서공회는 각 지역 교회와 정부와 협력하여 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성경을 읽고 있는 르완다 여성



낡고 파손된 키냐르완다어 성경

제공하며, 대학살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와 분노, 적개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르완다성서공회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살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르완다 사람들은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자로 훈련받고 있다. 실제로 르완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는 르완다

르완다성서공회의 전 직원이었던 마르셀린은 대학살에서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마르셀린은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성경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었습니다. 대학살 기간 동안 98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의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

터 사람들에게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성경 보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보급할 수 있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르완다성서공회에서

진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그램 담당자는 “대부분의 르완다 사람들은 성경 한 권을 구입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르완다성서공회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경을 간절히 원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보급할 성경이 필요합니다.”라며 성경 기증을 요청했다.

아픈 역사를 안고 지난 20여 년을 지내온 르완다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르완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재된 대학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들의 아픈 기억을 아물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보내는 성경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알려주고, 이들을 건강하게 세울 것이다. 🙏



해당 QR코드를 통해 르완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bskorea.or.kr



성경이 든 상자를 들고 기뻐하는 르완다 사람들



★ 후원문의 ★

르완다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매월 10만 원이면 20명, 1만 원이면 2명의 르완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르완다에 보내는 성경 컨테이너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 - 374 - 3061(수신자 부담), 02 - 2103 - 8861~3

미얀마에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를 보냅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은평성결교회,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2016년 3월,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의 첫 번역을 후원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와 이 성경 5,000부를 기증하도록 후원한 은평성결교회(한태수 목사) 그리고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기감, 안중협 회장)가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에 기증한 미얀마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

미얀마의 라시드 부족은 미얀마 북부 지역에 있는 카친(Kachin)주와 중국 국경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 민족으로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높은 민족이다. 지난 2009년 라시드어 성경전서를 봉헌한 후, 복음화율이 증가했지만 해설 성경이나 주석서, 그 외의 성경 관련 자료들이 없어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고 공부하기 어려웠다. 이에 라시드 부족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해설 성경을 보급해 달라고 미얀마성서공회에 간절히 요청을 했고, 2010년에 라시드어 해설 성경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본 공회를 통해 라시드 부족의 형편을 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 번역 비용을 후원하고, 은평성결교회,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기감)는 성경 5,000부의 제작 비용을 후원하였다.

미얀마성서공회 총무 코웨이 람 탕 목사는 “라시드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해설 성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라시드 부족 대표는 “저희는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를 미얀마에 보내며, 은평성결교회 한태수 목사는 “라시드 부족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여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마다 그 부족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요한 축이 되어 함께 협력하여 미전도 종족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후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성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협력합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은평성결교회는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에 이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구약전서 후원을 약속하였다.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후원해주신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현재 전 세계에 언어가 약 7,000개에 이르는 데 비해 단편(쪽복음)이라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아직 많습니다.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번에 보낸 미얀마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는 태국의 치앙마이를 거쳐 미얀마성서공회에 도착하여 4월 24일, 미얀마 현지에서 봉헌식을 가졌다.



성경 증정 - (왼쪽부터) 이영훈 목사, 권의현 사장



미얀마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 기증식에 참석한 은평성결교회 성도들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 봉헌식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기감)

네팔에 성경 10,240부를 보냅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사회봉사부, 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

2016년 4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사회봉사부, 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그리고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네팔에 네팔어 성경 10,24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에 기증한 네팔어 성경

본 공회는 지난 호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네팔 - 네팔에 성경을 보냅니다!”(〈성서한국〉 2015년 여름, 4-7페이지 참고)를 통해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진 네팔의 안타까운 상황과 성경이 유실되어 보급할 성경이 부족한 네팔성서공회의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그리고 본 공회 후원회원들은 네팔의 성경 보급을 위해 본 공회에 헌금을 보냈고, 그 열매로 총 10,240부의 네팔어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이번에 기증하는 네팔어 성경은 네팔성서공회의 요청에 따라 본 공회에서 무료로 조판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작 기증하게 되었다.

기증식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부장인 김권수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요일 3:17~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그 당시, 최빈국이었던 조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이번에 보내는 네팔어 성경으로 네팔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께서 네팔에 성경이 전달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전달하는 우리는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크게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하였다.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서 기증한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 지속

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네팔성서공회는 성경을 받은 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 도시들과 농촌 지역의 무너진 교회들에 성경을 보급할 계획이다. 🇳🇵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는 네팔 사람들



지진으로 성경이 훼손된 네팔성서공회 성서회관



기증식에 함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참석자들



이번에 기증 받는 네팔은

네팔은 지난 해 4월, 수도 카트만두 북서쪽을 강타한 7.8의 대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90% 이상의 집들과 건물들이 붕괴되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네팔성서공회의 보고에 따르면, 카트만두의 어떤 한 교회에서는 교회 외벽이 무너져 최소 40여 명의 성도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네팔성서공회 성서회관에 보관하고 있던 성경도 대부분이 손상되어 보급할 수 있는 성경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팔 사람들이 겪은 정신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네팔 사람들은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60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유럽 중동 지역 14개국



슬로베니아



폴란드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인 디아스포라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유럽 중동 지역
5개국
42,056부
발송

아시아 태평양 지역 8개국



남태평양



방글라데시

남태평양
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3개국
34,100부
발송

아프리카 지역 19개국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나
가봉
남수단
니제르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세네갈

스와질랜드
에티오피아
우간다
차드
카메룬
케냐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아프리카 지역
6개국
87,816부
발송

중남미 지역
8개국
44,613부
발송

중남미 지역 19개국



아이티



파라과이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니카라과
동카리브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라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16. 5. 26 기준)

아직 성경이 발송되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나라에 성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에콰도르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위치 남아메리카
북서부 연안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케추아어 등



인구 1,500만여 명
(2015년 7월 기준)



종교 가톨릭 74%, 개신교 10%, 기타 16%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에 닥친 지진

지난 4월 16일, 에콰도르 북부지역에 강도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600여 명, 부상자는 1만 2천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잇달아 일어난 100여 차례의 여진과 지난 5월 18일 다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지금도 계속 피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2만 6천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상

황이다.

지진이 일어나자 에콰도르 기독교협의회는 재난구호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에콰도르성서공회 프레디 게레로 총무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재난 현장을 돌아보며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레디 총무는 본 공회에 서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현장을 전했다. “나라 전체를 흔들었던 지진이 일어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에콰도르의 건물들



이재민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는 에콰도르 어린이

지진으로 무너진 이재민들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는 에콰도르성서공회

지진이 일어난 후 식수, 음식, 의약품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다양한 국제구호단체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특별히 이번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나 자녀를 잃어 큰 절망 가운데 있고, 지진 중에 가족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연들도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가족이나 전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진 형제자매들의 영혼을 보듬어 줄 영적인 지원 또한 시급하여 이들을 위로할 성경 또는 상담 자료들도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구호물자들 중에 이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성경은 찾아보기 어렵다.

에콰도르성서공회 또한 기독교 재난구호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정부, 교회와 연합하여 피해지역에 구급 물자 지원을 계획하는 등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콰도르성서공회는 다음 6가지 사역에 집중하여 사역을 펼치고 있다.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성경 자료 제공, 공동 부엌 시설 지원, 식수 제공, 이재민 지역에서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 지역 간의 이동 지원 등이다.

지진이 발생한 후 에콰도르성서공회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약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였다. 이 봉사자들은 트라우마 치유 관련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아 피해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 평안을 전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성서공회는 임시 보호소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어린이를 위한 긴급 구호 사역을 주도하고 있다.

성경으로 다시 일어난 에콰도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

에콰도르성서공회는 절망의 순간 한국 교회의 후원을 통해 받은 성경으로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다. 지난 2009년 경제위기로 성서사업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본 공회 성경 보내기 운동 후원회원을 통해 받은 성경으로 재기하여 미주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성서공회 중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 이후 에콰도르성서공회는 목회자 교육이 어려운 이웃나라 엘살바도르와 쿠바를 위해 신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성경이 필요한 쿠바에 2만여 권의 성경을 지원

하는 등 남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지진과 그로 인한 혼란으로 성경이 필요한 가운데 대한성서공회에 긴급 후원을 요청하였다.

에콰도르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재민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반으로 한 트라우마 치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약 1만 권의 성경이 필요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성경이 훼손되어 보급할 성경이 부족하다. 또한 함께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단편성서도 약 10만 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생활하는 에콰도르 사람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시 142:5)

열악한 조건에서도 에콰도르성서공회는 위 말씀을 기초로 오직 하나님만이 상처받은 에콰도르 이재민들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긴급구호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일을 진행하는 에콰도르성서공회와 이를 이끄는 프레디 총무에게 성경이 전달되어 이재민들의 영혼의 필요를 넉넉히 채울 수 있도록, 또한 성경을 받는 이들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에콰도르 가정집

* 긴급모금 *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에콰도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10만 원**이면 **20명**, **1만 원**이면 **2명**의 에콰도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보내는 성경 컨테이너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가마우지

▶ 관련구절

레 11:17; 신 14:17

▶ 논의

히브리어 ‘살라크’를 ‘가마우지’로 번역하는 전통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번역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살라크의 어근에는 ‘던지다’, 또는 ‘토하다’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새가 먹이 위로 자기 몸을 던져 먹이를 낚아채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가마우지가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가마우지는 물 위에서 헤엄치다가 먹이를 보면 물속으로 잠수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드라이버(G. R. Driver)는 이 말을 ‘노자(fisher owl)’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고, 새영어성경(NEB)과 개역영어성경(REB)이 이 번역을 따랐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동 노자’로 불리는 이 새는 잘 알려

진 새는 아니다. 이 새가 고기를 낚아채는 광경은 달빛이 드리운 밤에 어부들이나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이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살라크는 ‘물수리’를 가리킨다. 이 새는 높은 곳에서 물로 날아 내려와 물고기를 발톱으로 낚아채는 바다의 독수리 같은 새이다. 몇몇 이스라엘 학자들은 이것이 ‘스마르나 물총새’, 혹은 ‘북양가마우지’의 고대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두 새 모두 높은 곳에서 먹이감을 향해 돌진해 내려가서 부리로 물 속의 물고기를 낚아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된 새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단어를 ‘물수리’로 번역하는 것이 ‘가마우지’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타당할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KYJeon



©KYJeon

▶ 설명

‘하얀목가마우지’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흔한 가마우지 종이다. 이 새는 길고 가는 몸매와 끝이 갈고리 모양을 한 긴 부리를 가지고 있다. 다 자란 가마우지는 전체가 검정색을 띠며, 목과 부리가 만나는 곳에 작은 노란색 주머니가 달려 있다. 얼굴도 노랗다. 이런 종류의 가마우지는 해안이나 호숫가, 큰 강 그리고 늪 지역의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이 새는 오리처럼 발에 물갈퀴가 있다. 물에서 헤엄쳐 다닐 때에는, 물 속에 몸을 거의 다 담그고 헤엄을 친다. 또한 잠수도 하는데, 꽤 오랫동안 물 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물고기를 사냥한다.

모든 가마우지 종과 마찬가지로, 깃털이 방수가 아니다. 이 점 때문에 쉽게 물속에서 헤엄쳐 다닐 수 있지만, 수면 위나 물 속을 어느 정도 다니고 난 뒤에는 깃털을 말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만 한다. 그래서 가마우지들이 통나무나 바위 위에 앉아서 날개를 쭉 펴고 깃털을 말리고 있는 장면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가마우지들은 낮에는 넷이나 다섯 정도 작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밤에는 많은 수의 숫자가 함께 나무에 근거지를 두고 모여 있는데, 무척 시끄럽다.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오는 시기에는 많은 수의 검은 가마우지들이 길게 한 줄로 이어서 물 위로 낮고 빠르게 날면서 물고기 떼를 찾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물고기 떼를 발견하

면 모두 물 위로 내려앉아 신나게 잡아 먹는다.

▶ 특별한 의미 혹은 상징

정결하지 않은 새들의 목록에 살라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성경에서 이 단어의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다.

▶ 번역

만일 번역자가 살라크를 ‘가마우지’라고 번역한다면, 이 새를 그 지역에서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가마우지는 바다나 큰 강, 호수 등과 같은 큰 물이 있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는 새이기 때문이다. 하얀목가마우지는 실제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그리고 북미의 동부에 있는 해안이나 호숫가, 큰 강 근처에서도 발견된다. 남아프리카에서는 하얀목가마우지와는 조금 다른 모양의 가마우지가 발견되는데, 이 새는 ‘하얀가슴가마우지’라고 불린다. 이 새는 하얀 가슴과 목, 그리고 좀 더 작은 크기의 목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학명은 ‘하얀목가마우지’와 동일하다. 다른 지역에는 그 곳의 가마우지 종이 있을 수 있는데, 새들이 앉아서 날개를 넓게 펴고 깃털을 말리는 습관으로 판별할 수 있다. 🌐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by Edward R. Hope (UBS, 2005) 중에서
(번역: 이영미)

내전 중에도 성서를 반포하고 있는 시리아성서공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다마스쿠스 거리

시리아는 지난 5년 동안 내전으로 인해 인구의 절반이 죽거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약 4백만 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고국을 떠났고, 76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군인들이 마을들을 포위했고, 포위된 곳을 간신히 빠져 나온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계속 도망 다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좁은 집이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시리아 성서공회의 직원들은 성경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서를 반포하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많은 가정들이 희망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지만, 힘과 위

로를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성서공회 총무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10배 이상 급증한 성서 수요

이처럼 큰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시리아성서공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서 보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기 전인 2010년에 시리아성서공회는 15,000부 이하의 성서를 반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수요가 10배 이상 증가하여 시리아 전 지역에 약 159,000부의 성서를 반포하였습니다.

시리아의 성서 반포는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에 있는 성서공회 서점 및 협력 서점, 교회, 수도원 및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전 중에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서점을 항상 열었고, 알레포 서점도 교전이 극심하던 이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문을 열었습니다. 알레포 서점이 위치한 건물 2층에 로켓이 떨어져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폭발하지 않아 사상자도 없었고 성서들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알레포 지역은 언제든지 총격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성서공회 직원들은 그곳을 지키며 수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점

을 주로 찾는 사람들은 시리아 청년들로, 성서공회에서 교회에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을 받고자 찾아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성경을 보급하는 성서공회 직원들

시리아 전역에 성서를 운반하는 것 특히 외딴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리아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서를 전하도록, 버스, 트럭, 교회 봉사자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서공회 직원들은 교전이 진행 중인 지역에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시리아 사람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 준비하는 성서공회 직원들

또한 성서공회는 내전의 아픈 기억으로 힘들어 하는 기독교 가정들을 돕기 위하여 성경을 바탕으로 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시리아 지역 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교회 대표자들이 일주일 간 레바논의 외딴 수도원에 모여 중동지역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부터 그들의 경험담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들,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며 성서 반포 사역을 감당하는 시리아성서공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대한성서공회를 성서 출판 지원 센터로 공식 인준하다

지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전 세계 150여 개국 성서공회의 4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 기간 중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본 공회를 세계성서공회 성서 출판 지원 센터로 공식 인준하였다.

본 공회가 지난 1973년부터 해외 보급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좋은 품질의 성경을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과 근래에 성경 콘텐츠 개발, 조판, 표지 디자인 등 성서 출판 전반에 걸쳐 더욱 폭넓은 지원을 하며 미자립 성서 공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서 기증 사업을 펼쳐온 점이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세계총회에서는 미국성서공회를 성경 말씀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지원 센터로, 영국성서공회를 성경 옹호 지원 센터로, 독일성서공회는 학문용 성경 지원 센터로 인준하였다. 🌐



세계성서공회 성서 출판 지원 센터로 인준받는 모습
-권의현 사장(왼쪽)

제12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신임 이사장 손인웅 목사

본 공회는 지난 5월 31일(화), 제12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부 기도회에서는 홍기영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창조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

로 박종덕 사관(구세군대한본영), 김웅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김현배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가, 감사로는 최규완 장로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신상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의 이사 선임이 있었다.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손인웅 목사, 부이사장에 이용호 목사, 서기에 김현배 목사, 회계에 이선균 목사가 선임되었고, 실행위원에는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정하봉 목사, 이정익 목사, 우창준 목사, 한규동 목사가 선임되었다. 🌐



제125회 본 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제9차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총회에 참석한 150여 개국 대표들

전 세계 성서가 2,935개 언어로 번역되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발표한 '2015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Global Scripture Access Report 2015)'에 따르면, 전 세계 6,887개의 언어 중에 성경전서는 563개의 언어, 신약전서는 1,334개, 단편(쪽복음)은 1,038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특히 2015년에는 3천 3백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28개 언어의 첫 번역이 이루어진 해로, 이 중 첫 번역 성경전서는 11개, 신약전서는 6개, 단편성서는 11개에 이른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개의 성서 번역 완료 프로젝트'는 2015년 말 기준 90개 언어의 번역이 완성되었고, 그 중 53개의 언어가 출판되었다.

이 중 하나인 미얀마의 쿠미 친 성경은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번역, 제작, 출판되었다. 쿠미 친 신약성경은 1958년 출판되

었으나 구약성경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한국 교회가 번역 지원 및 성경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하면서 성경전서를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각국 성서공회들에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번역본을 개정하고 새로운 번역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20개의 새로운 번역본 및 개정본과 2개의 해설 성경이 출간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성서공회들은 400여 개 이상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편(쪽복음)조차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952개에 이른다. 이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모든 사람이 성경전서를 갖게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매달 한 권의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신청인	(남, 여)	교회명	교회직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이메일주소	☐ 소식지 이메일 요청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천고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1회에 한해 재출금 됩니다.)
	☐ 매월 20,000원(성경 4권)	은행명	계좌번호
	☐ 매월 10,000원(성경 2권)	예금주명	예금주 휴대전화
	☐ 매월 5,000원(성경 1권)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매월 원(성경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를 위해 동의함에 체크해주세요!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예금주: _____ (인 또는 서명)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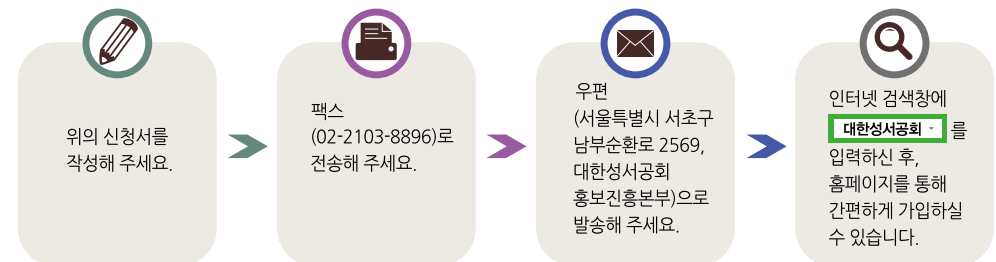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2.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내전의 상처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그 아픔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기근과 질병뿐만 아니라 종족 간, 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남수단**에서는 반군들이 목숨을 담보로 폭력을 자행하고 있어 오늘도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르완다**는 대학살이 일어났던 1994년 내전의 후유증을 여전히 앓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실의에 빠졌던 우리가 해외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성경을 받아 말씀을 읽고 소망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듯이, 끊임없는 내전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20명의 사람들이,
2만 원을 헌금하시면 4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성경 번역과 보급을 위한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외환은행 630-008603-501

농협은행 355-0025-0990-53

수협은행 033-01-085327

우체국 011916-01-000076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해당 QR코드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